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및 건강 특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Health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정문진*, 이성규**

동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oon-Jhin Jeong(jeongmj1020@hanmail.net)*, Seong-Gyu Lee(screen78@daum.net)**

요약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은 장애인고용패널 7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취업유무, 노후준비, 현재 건강상태, 일상생활 타인도움 여부, 만성질병 여부가 유의미하였다. 둘째, 경제적 특성 중 노후준비, 건강 특성 중 현재 건강상태와 일상생활타인도움 필요 여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와 건강상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이 필요없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고령장애인 | 매개효과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plan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For this, it analyzed the influence of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characteristics upon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a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7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ife satisfaction was high in the case of being employed and when old-age preparation was ready, current status of health, whether or not they need help in their daily life, chronic disease. Second, the mediate effect of self-esteem was analyzed for the influence of the plan for old age, good health condition and other's help in daily life upon life satisfaction. That is, those enhanced the self-esteem and it played an important rol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Based on such study results, this study recommends a number of the policy suggestions.

■ keyword : |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 Mediator Effect | Self-esteem | Life Satisfaction |

1.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

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장애

접수일자 : 2017년 04월 24일

수정일자 : 2017년 06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6월 09일

교신저자 : 이성규, e-mail : screen78@daum.net

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주관적 소속계층을 묻는 질문에 하층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45-64세는 69.4%, 65세 이상은 68.2%로 평균 67.4%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1]나 노후준비가 안되었다는 답변이 50세 이상에서 81.3%로 50세 미만의 7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2]. 또한 Shiller[3]는 장애인의 연령증가는 빈곤확률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 결과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분야가 삶의 만족도이다. 즉, 삶의 만족도를 높여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고령 사회에서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에 빠진 고령장애인에 대한 가장 의미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적 접근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령장애인 연구를 주제별로 보면 고용이나 취업 문제[4-7], 빈곤 문제[8][9] 등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10-13].

또한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주로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장애 요인,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고령장애인의 객관적 삶의 만족도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는 지적이 등장하는데 이는 고령장애인의 심리적 관점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객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자아존중감이다.

삶의 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심화된다. Zhang&Leung[14]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은 젊은층에 비해 노인층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노인에게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매우 한정적이다. 고령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15][16]을 볼 수 있지만,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의 이중고 속에서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성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그런 접근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인간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객관적으로 규명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요인이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장애인에게 있어 특히 경제적 측면과 건강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 정의

고령장애인의 개념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의 개념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고령장애인 개념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령 장애인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을 65세[13], 60세[12], 55세[5], 50세[6] 기준으로 고령장애인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들 논의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을 5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0-25년 더 빠르게 노화를 경험한다는 주장[17]이나 장애인은 나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적, 의학적, 심리적 문제가 비장애인보다 더 빨리 발생한다는 주장[18]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논의는 크게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객관적 측면은 주택, 자동차 등 물질적 이기의 보유현황과 여러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소득, 범죄율, 인구당 의사수, 실업률과 같은 사회적 지표로 측정한다[19]. 반면, 주관적 측면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 등의 복합적인 상황속에서 개인이 표현하거나 경험한 주관적인 만족을 의미한다[20].

현재 삶의 만족도는 이러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모두 중시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 생활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심리상태 또는 인지평가 모두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21].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평가 또는 부정적인 견해로서 삶의 질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자신의 삶이 즐겁고 활력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21].

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먼저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제적 특성은 취업 유무, 월소득, 노후준비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연금, 가구소득, 주관적 소속 계층 등의 변수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월소득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후준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의 경우 장애인에게 있어 수급 대상이 아닐 경우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 연금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낮아진다는 결과가 상충하고 있다. 주관적 소속계층은 상층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22-27].

건강특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함께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도움 여부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함께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함께 나타났다. 만성 질병의 경우에는 만성 질병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변수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2][21][28][29][33].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삶의 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결과는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15][29-32].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 정립과 함께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과 자아존중감도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핵심 독립변수로 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다른 변수와 달리 심리적인 변인으로서 특히 노인이나 고령장애인에겐 삶의 만족도와 연계되는데 핵심 요인으로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가 아닌 매개적 관계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

한 영향요인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제7차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에서 추출하였다. 장애인 고용패널조사[2]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로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15-75세까지의 장애인 4,08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7차년도에는 21-81세가 대상이다. 이들을 50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할 경우 전체 4,082명 중에서 고령 장애인은 75.7%인 3,089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주된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과 같은 기술통계 그리고 회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

으로 매개 효과 분석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통하여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경제적 특성은 취업 유무, 노후준비 여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 여부로 구성하였으며, 건강 특성은 현재 건강상태,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 여부 그리고 만성질환 여부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수는 자아존중감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인적 요인에서 성별, 배우자 유무, 학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시켰다. 장애 요인으로는 장애 정도, 장애 유형, 장애유지기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여부를 포함시켰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

변수		내용		측정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1-9번의 만족도)		하루일 만족도 제외, 만족도 평균
독립 변수	경제적 특성	취업유무	취업 여부	취업=1, 미취업=0
		노후준비	예/아니오	예=1, 아니오=0
		기초생활수급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1, 예=0
	건강 특성	현재 건강상태	좋음/나쁨	좋음=1, 나쁨=0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 여부	필요/불필요	필요=0, 불필요=1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1 ~ 8까지의 항목	각 항목의 평균
통제 변수	인적 요인	성별	남/녀	남=1, 여=0
		학력	고졸이하/고졸이상	고졸이하=0, 고졸이상=1
		배우자 유무	있음/없음	있음=1, 없음=0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상층	하층=0, 상층=1
	장애 요인	장애정도	중증/경증	중증=0, 경증=1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1 정신적 장애=0
		일상생활 차별 여부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여부	있음=0, 없음=1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여성이 39.2%, 남성이 60.8%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결혼상태는 미혼 7.0%, 결혼 동거(유배우자) 63.1%, 이혼 13.6%, 사별 14.9%, 별거 1.5%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이 59.9%, 중하층이 34.8%이며, 중상층은 5.1%, 상층은 0.2%로 나타났다. 중상층 이상이 전체의 5.3%에 불과하였다.

고령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

유형의 경우 신체외부 장애가 6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감각 장애 25.3%, 정신적 장애 3.5%, 신체내부 장애 6.3%로 나타났다. 장애 등급은 경증 장애인은 61.4%, 중증 장애인은 38.6%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았다는 답변이 49.7%였으며, 받지 않았다는 답변은 50.3%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활동 상태를 3개의 범주로 구분해 보면, 취업자는 38.3%, 실업자 1.5%, 비경제활동인구 60.2%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여부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81.3%였으며, 준비되었다고 한 답변은 18.7%로

표 2. 대상자의 인적 특성

구 분		N	%
성별	여성	1,210	39.2
	남성	1,879	60.8
결혼 상태	미혼	217	7.0
	유배우(결혼/동거)	1,948	63.1
	이혼	419	13.6
	사별	459	14.9
	별거	46	1.5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1,851	59.9
	중하층	1,075	34.8
	중상층	158	5.1
	상층	5	0.2
장애유형	신체외부 장애	2,004	64.9
	감각 장애	783	25.3
	정신적 장애	108	3.5
	신체내부 장애	194	6.3
장애등급	경증	1,898	61.4
	중증	1,191	38.6
일상생활차별	있음	1,535	49.7
	없음	1,553	50.3
경제활동상태 (3개 구분)	취업자	1,183	38.3
	실업자	47	1.5
	비경제활동인구	1,859	60.2
노후준비여부	준비안됨	2,512	81.3
	준비됨	577	18.7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수급자	893	28.9
	비수급자	2,196	71.1
총 계		3,089	100.0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28.9%가 수급자였고, 71.1%가 비수급자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의 건강 특성은 현재 건강상태, 일상생활 차별 여부 그리고 만성질병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재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가 15.1%, 좋지 않은 편이다 57.3%, 좋은 편이다 27.0%, 매우 좋다 0.6%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좋지 않다(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가 72.4%였으며, 좋다(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가 27.6%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59.8%가 필요없다고 답변한 반면, 40.2%는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만성질병 여부는 전체의 72.6%가 예라고 답변한 반면, 27.4%는 아니오 라고 답변하였다.

2.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분석

제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제적 특성에서는 취업유무, 노후준비,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왔다. 건강 특성에서는 현재 건강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 필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만성질병 여부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인적요인과 장애 요인 중에서는 성별, 학력, 배우자,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정도, 장애유형, 일상생활차별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제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제적 특성에서는 취업 유무, 노후준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건강 특성에서는 현재 건강상태,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여부, 만성질병 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유형, 일상생활차별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 경제적 및 건강 특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매개 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화된 베타값	t값	p	R ²
1단계	취업유무	자아존중감	.200	10.655	.000	.266
	노후준비		.045	2.625	.009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063	3.364	.001	
	현재건강상태		.159	9.213	.000	
	일상생활타인도움필요여부		.080	4.323	.000	
만성질병여부	.008	.463	.644			
2단계	취업유무	삶의 만족도	.084	4.638	.000	.314
	노후준비		.104	6.309	.000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033	1.825	.068	
	현재건강상태		.254	15.235	.000	
	일상생활타인도움필요여부		.106	5.927	.000	
만성질병여부	.043	2.611	.009			
3단계 (독립변수)	취업유무	삶의 만족도	.015	.878	.380	.401
	노후준비		.089	5.744	.000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011	.667	.505	
	현재건강상태		.199	12.613	.000	
	일상생활타인도움필요여부		.078	4.678	.000	
만성질병여부	.040	2.618	.009			
3단계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345	21.131	.000	

*p<.05, **p<.01, ***p<.001

제3단계의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제적 특성에서는 노후준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고 취업유무와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건강특성에서는 현재 건강상태,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 여부, 만성질병 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배우자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정도, 일상생활 차별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단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변수는 노후준비(.045→.104→.089)와 현재건강상태(.159→.254→.199).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여부(.080→.106→.078)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34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특히 노후준비의 2단계 회귀 계수 .104와 3단계 회귀 계수 .089와 비교할 때 2단계 회귀 계수가 크기 때문에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상태 역시 .254와 .199로 매개 효과가 있으며,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 여부도 매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노후준비와 현재 건강상태 그리고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의 값은 1단계에서는 26.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2단계에서는 31.4%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40.1%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특성에서의 취업 유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그리고 건강 특성에서의 만성질병 여부는 매개 효과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추가적으로 소벨 검증법(Sobel Test)을 통해 각각의 개별적인 간접효과 경로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각 변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먼저, 경제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 유무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의 경로는 Z=0.8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노후준비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는 Z=5.7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는 Z=0.6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건강 특성에서는 현재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현재 건강상태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는 Z=7.4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 여부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는 Z=3.2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만성질병 여부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는 Z=0.46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특성에서는 노후준비 여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특성에서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 여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함과 동시에 그런 특성이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어떤 유의미성을 갖는지를 살

표 4.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매개 효과 Sobel Test 결과

	경로	Z _{ab}
경제적 특성	취업유무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0.89
	노후준비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5.71**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0.63
건강 특성	현재 건강상태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7.44***
	일상생활 타인도움 필요 여부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3.23**
	만성질병 여부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0.46

*p<.05, **p<.01, ***p<.001

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는 접근을 위해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특성과 건강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취업자와 노후준비가 된 경우 정(+)의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현재 건강상태,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여부, 만성질환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과 건강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특성에서는 노후준비는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취업유무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건강특성에서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 필요여부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장애인에게 자아존중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노후준비가 되었는가이다. 즉, 고령장애인에게 있어서 노후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또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건강상태가 좋거나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어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적 특성이나 건강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고령사회에서 고령과 장애를 동시에 안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소득문제와 건강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가 중요한 변수지만 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취업이나 노후준비 그리고 건강과 관련되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

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고령장애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확고한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비용 보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장애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증액 등과 같은 지원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료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초기 상담 서비스를 통한 자긍심 강화와 정신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예산 확충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2] 민준영, 김호진, 김성천, 최종철, 제7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201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 [3] Bradley R. Schiller,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NJ : Pearson/Prentice Hall, 2008.
- [4] 이성규, "고령 장애인의 취업 결정 요인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9권, pp.45-64, 2012.
- [5] 전미리, 안선영, "고령장애인의 고용안정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제15권, 제2호, pp.99-128, 2011.
- [6] 김용탁, 고령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 [7] 박혜진,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8권, pp.169-195, 2007.

- [8] 이성규, 김용탁, 박단비, “고령장애인의 빈곤결정 요인 연구: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비교”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2권, pp.221-245, 2014.
- [9] 노승현,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3호, pp.51-82, 2012.
- [10] 김성원,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11] 권재숙,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12] 이영미, “장애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 요인 연구: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간 비교를 중심으로,”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11.
- [13] 권오균, “장애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9권, pp.7-32, 2008.
- [14] Zhang and J. P. Leung,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mainlan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37, No.2, pp.83-91, 2002.
- [15] 권오형,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와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4호, pp.297-319, 2015.
- [16] 김동주, 고민석, “경제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2호, pp.137-164, 2014.
- [17] V. L. Grist, *The relationships between age of disability onset, adaptation to disability an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Ph. D.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2010.
- [18] T. Heller and J. Caldwell, “Supporting aging caregivers and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future planning,” *Mental retardation*, Vol.44, No.3, pp.189-202, 2006.
- [19] 이선영, *생태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20] J. P. Johson, C. R. McCauly, and J. B. Copley, “The Quality of life hemodialysis and transplant patients,” *Kidney International*, Vol.22, 1982.
- [21] 김종선, *한국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22] 허준수, 조승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연구: 유형별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673-691, 2017.
- [23] 박용순, “고령장애인의 노후준비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태 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 *비판과 사회정책*, 제52권, pp.45-82, 2016.
- [24] 이금주, 장혜인, 이법석, 이지은, 한상은, 김은주, “척수장애인의 연령대별 삶의 질 수준과 결정요인 차이: 청년층과 중년층의 비교,” *재활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pp.25-39, 2015.
- [25] 박주영, *고령여성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후준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26] 백은령,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27] 전명숙, 태명옥, “사회경제적 변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여가참여의 매개효과,”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pp.323-333, 2016.
- [28] 김성희,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재활복지*, 제20권, 제3호, pp.17-43, 2016.
- [29] 이준상, “시각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각장애연구*, 제28권, 제2호, pp.211-228, 2012.
- [30] 정일교, “사회적 지지가 뇌성마비장애인의 삶의

-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9권, 제4호, pp.61-81, 2015.
- [31] 김은라, 박재국, 박량은, “지체장애인의 차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1호, pp.27-54, 2015.
- [32] 황혜민,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33] 배상열, 고대식, 노지숙, 이병훈, 박형수, 박종, “한국 노인의 신체활동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255-266, 2010.

저 자 소개

정 문 진(Moon-Jhin Jeong)

정회원



- 200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학사)
 - 2012년 8월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201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박사)
 - 2010년 7월 ~ 2014년 6월 : 양천구 서울시의원, 새누리당 서울시의회 대변인
 - 2008년 ~ 2010년 6월 : 사회복지사단법인 ‘좋은사람들’ 이사장
 - 2009년 ~ 2010년 6월 : 좋은사람들 지역아동센터 대표
 - 2014년 ~ 2016년 8월 :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
 - 2015년 3월 ~ 현재 :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과 겸임, 조교수
 - 2015년 12월 ~ 현재 : 카페라리 목동점 대표
 - 2017년 4월 ~ 현재 : 건강마을 목동점 대표
 - 2015년 1위 ~ 현재 : 카벨플리트 오케스트라 단장
 - 2014년 7월 ~ 현재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 2014년 7월 ~ 현재 : 사회복지사단법인 ‘좋은사람들’ 이사
- <관심분야> : 장애인,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이 성 규(Seong-Gyu Lee)

정회원



- 현재 :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984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복지행정분야 석사)
 - 1997년 4월 : 런던정경대학(LSE) 사회복지정책학과 졸업(사회복지정책분야 박사)
 - 1990년 9월 ~ 1999년 2월 :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국장
 - 1997년 9월 ~ 1998년 3월 :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수석실 행정관(YS 정부)
 - 1999년 3월 ~ 2003년 3월 : 공주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 2003년 3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 2006년 10월 ~ 2011년 1월 :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 2008년 10월 ~ 2010년 10월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 2011년 1월 ~ 2014년 4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2015년 5월 ~ 현재 :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 <관심분야> : 장애인, 사회복지행정